

복지 관련 부정·비리 등
제보 받습니다
☎ 062-971-7400

장애인 단체 숙원... '나주시 장애인 연합회관' 연말 완공

송월동 일원에 3층 규모로 신축...장애인 단체 집적화

나주시 지역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인 '장애인 연합회관'이 올 연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1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 회관은 송월동 일원에 총사업비 55억원을 투입, 8860㎡(2680여평) 부지에 연면적 1943㎡(587여평), 지상 3층 규모로 지난 4월 착공해 오는 12월 준공 예정이다.

곳곳에 흩어져 있던 장애인 기관·단체를 한곳에 모아 관련 업무와 기능을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함으로

서 장애인들의 사회적 자립기반 조성을 돕고 복지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회관 1층에는 농아인협회,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체육회, 한국장애인부모회 나주시지회 등 장애인 단체 사무실과 상담실이 들어선다.

2층과 3층에는 각각 주간보호센터 발달장애인 프로그램실, 다목적 홀 등을 갖추고, 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다양한 사회·문화 프

로그래를 운영할 계획이다.

최근 신축 현장을 방문한 강인규 나주시장은 건립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이용계층인 장애인 단체와 면담을 통해 민선 7기 공약사항인 '무장애 도시 건설'을 위한 건의와 애로를 적극 청취했다.

강 시장은 "연합회관이 지역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 시키고,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미래지향적인 복지 거점이 될 것"이라며 "장애인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무장애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1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역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인 '장애인 연합회관'이 송월동 일대에 총사업비 55억원을 투입, 8860㎡(2680여평) 부지에 연면적 1943㎡(587여평), 지상 3층 규모로 오는 12월 준공 예정이다. 사진은 최근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한 강인규 나주시장.

“우리도 경기장에서 한국 선수 응원해요”



“수영경기장 바로 앞에서 생생하게 보고 우리나라 선수 응원하니 정말 좋아요.”

구름 관중이 몰리며 한층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22일 남부대 시립 국제수영장. 휠체어를 탔지만 경기

광주 장애인 50여명 남부대 경기장 찾아 경영 관람 임다슬·한다경 등 한국 선수에 환호...힘찬 응원도 “경기장 동선과 관람석 등 장애인 배려 잘 돼 있어”

장 가장 앞에서 어느 누구보다 열광하게 환호하며 우리나라 선수를 응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어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열린케어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광주 지역 장애인 50여명이다.

이들이 위치한 마련된 자리는 미디어석 바로 앞에 마련된 편의증진석으로 휠체어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배려한 공간과 함께 넓은 좌석이 마련돼 몸이 불편하더라도 경기장

가장 앞에서 편하게 볼 수 있는 곳이다.

장애인들은 평소 TV에서만 보던 경기를 직접 보며 경영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다.

특히 한국 선수가 참가하자 누구보다 열심히 환호하며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했다.

김민수씨(27)는 “TV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재밌고 수영장 규모도 커서 즐겁다”며 “계속 와서 선수들이

수영하는 것을 보고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애인을 배려한 경기장의 구조와 관계자들의 친절함에도 임지를 치켜올렸다.

안도환(49, 어울림센터) 장애인활동지원가는 “오늘 20여명의 장애인 친구들과 데리고 왔는데 경기장 오는 것에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며 “교통약자 출입구가 따로 있어 바로 들어올 수 있었고 휠체어로 최소한의 동선으로 경기장에 바로 들어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자원봉사자들과 관계자들이 이동을 도와주고 경기장 내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는 것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병원 아닌 집에서 건강한 노후 보내려면”

오늘 열린소통포럼...정부·지자체·시민,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착방안 논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주제로 네 번째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이 개최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오후 2시 열린 소통포럼 공간인 정부세종청사 종합안내동에서 '제4차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열린소통포럼은 국민과 공무원이 한 자리에 모여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네 번째 포럼의 주제는 '커뮤니티케어 바로 알고, 제대로 누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란 주민이 살던 곳에서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 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을 말한다.

보건복지부가 본격 토론에 앞서 지난해 11월 발표한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정부 대표로 임강섭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팀장과 이연숙 연세대 심바이오티카라이프텍연구원장이 나서 각각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추진방향'과 '지역사회 돌봄정책과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필연적·효율적 공생관계'에 대해 발표한다.

한신대 홍선미 교수(지역사회와 통합돌봄의 이해)와 강찬수 부산북구 지역

통합돌봄계장(부산형 통합돌봄 추진방향), 최영광 대구남구 행복정책과팀장(대구남구 장애인 선도사업 추진계획)은 지자체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쟁점을 토론한다.

포럼은 광화문1번가 국민참여플랫폼(www.gwanghwamoon1st.gakr)과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서 생중계된다.

국민 누구나 오프라인 포럼에 참석하거나 온라인 중계를 시청하며 실시간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순천시 'LP가스 배관시설' 개선사업 추진

순천시는 '더 편안한 안전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LP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가스용기에서 중간밸브까지 배관 자재로 흔히 사용하고 있는 고무호스를 강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기존 고무호스가 낡아서 발생할 수 있는 가스 누출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에는 600가구를 대상으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며 소외계층(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은 주관기관에서 인정하

는 세대가 해당된다.

2020년까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146호 제8조'에 따라 LP가스를 사용하는 모든 가정과 시설에서는 금속배관을 사용해야 한다. 고무호스 적발시에는 20만원부터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LP가스 배관자재를 고무호스로 사용하는 것은 자신뿐 아니라 이웃까지 위협하게 하는 행위"라며 "모든 가정에서 배관자재를 금속관으로 교체하는 것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업신청이나 문의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순천=김승호 기자

야호센터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

광산구